



[금융] 케이뱅크 이달 상장 예비심사 수익·안정성 관련 06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595.87 (-29.57)	코스닥 869.86 (-7.32)
금리 (국채 3년) 3.275 (+0.104)	환율 (원-달러) 1268.9 (+12.00) (10일)

산업동맥 곳곳 막혔다... 건설·석화·자동차 등 섰다운 임박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일파만파'

시멘트·철강·부품 등 수급 차질 장기화시 생산·수출 제동 불가피

경제·산업계, 파업 중단 호소 정부엔 '업무개시 명령' 요청

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물류가 막히며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항만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일일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9%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항 컨테이너 일일 반출입량(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은 8844TEU(반입 5199TEU, 반출 3645TEU)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평균 일일 반출입량인 3만 349TEU의 29.1% 정도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차량 운송길이 막히면서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공장의 경우 생산 라인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000여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약 3만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방식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돼 여타 모든 부품사가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성수기를 맞아 공사를 한창 진행해야 할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3000여대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운전자 가운데 1000명 정도가 화물연대 소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12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드 주차장에 항구로 옮기지 못한 수백대의 기아자동차 수출용 차량들이 가득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7째째인 이날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교섭에 들어갔다. /뉴시스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로 7째째에 접어들어 산업 동맥 곳곳이 막히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수급이 차질을 빚는 등 국내 산업계에 추가로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산업계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에 대해선 '파업 중단' 호소를,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에 대해선 '업무개시 명령 시행'을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한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 오후에도 회의를 열었다.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일 폐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전

속인 시멘트 업계의 경우 노조가 생산 공장(단양, 동해)과 유통기지(의왕, 수색, 인천, 포항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시멘트 출하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멘트 수급이 막히다보니 레미콘 제조도 힘들어 아파트 등 건설 현장도 이번주부터는 레미콘이 없어 추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기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파업 5일간

업계의 누적 손실 규모만 761억원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수요처인 레미콘업체와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제조 중단과 공기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석유화학업계도 하루 평균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 측은 "일부 업체의 경우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로 매출·수출 손실은 물론, 사대 장기화 시 공장 가동 정지나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빨간불'이 불거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친환경·스마트 고로로 재탄생한 광양제철소 4고로에 화입(火入)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90% ↓, 친환경 고로 재탄생

포스코, 광양제철소 4고로 화입식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따른 외부 악재에도 친환경 고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제조 경쟁력 향상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는 10일 광양제철소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 정덕균 포스코ICT 사장 등 그룹사 대표 및 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소 4고로 화입식을 개최했다.

최정우 회장은 "오늘은 광양 4고로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품 고로로 재탄생한 날이자,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며 "제철소의 상징인 고로처럼, 포스코도 세계 최고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포스코그룹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국채 금리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오른다

3년물 금리 10년만에 최고치
美 긴축발 추가 상승 불가피
기업·가계 자금조달 부담 ↑

국채 3년물 금리가 약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채권값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미국발 통화긴축(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3년물을 포함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올라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과 빛이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 마감 기준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0.104%포인트(P) 오른 3.275%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7일 기록한 연중 최고 기록(3.232%)을 넘어선 수준이다.

◆ 국채금리 상승... 기업 자금조달 부담

지난 5월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말

(2.96%)과 유사한 3.03%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이달 들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무기가 실리며 3.2%를 돌파했다. 국채 3년물 금리가 3.2%를 넘어선 건 9년 11개월 만이다. 국채 2년물 금리도 전장 대비 0.189%p 오른 3.071%에 마감했다. 국채 2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10일 첫 발행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년물 역시 전장 대비 0.056%p 오른 2.290%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5년물은 전장 대비 0.038%p 오른 3.452%, 10년물 금리도 전장 대비 0.024%p 오른 3.495%에 마감했다. 20년 물도 0.066%p 오른 3.404%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6월 19일(3.427%)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도 늘어나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도 문제다.

최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대출금리 상승, 주택매매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중 감소로 전환했다. 다만 4월 들어 집담 및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완화 등으로 다시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향후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총재는 지난 10일 '창립 제72주년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금리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kds0248@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이달 안에 개최 추진

▲이준석, '민들레 불참' 장제원에 "결단 존중...尹정부 성공 위한 길" (사진 뉴시스)

▲박순애 청문 시한 이번주까지... 만취 음주 전력에 교직사회 '싸늘'

▲첫 방미 박진 외교장관... "북 위협 한미 공조 집중 논의할 것"



▲안철수, 檢편증인사에 "너무 능력주의의 힘싸이면 다양성 힘 간과" (사진 뉴시스)

▲8200t 이시즈함 1번함 명칭 '정조대왕 함'... 이르면 7월 진수